



## 화해를 말하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_Nicholas Wolterstorff

언더우드 선교사를 배출한 미국의 뉴브런즈윅 신학교와 그가 세운 한국 교회들이 공동 주최한 제7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이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를 주제로 열렸다. 월트뷰에서는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한 예일대 신학대학 명예교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를 만났다.

### I . Reformed worship : Is it still relevant?

#### 예배, 그 전통은 무엇이고 계속 지켜져야 하는가? 그리고 여전히 적절한가?

**모두가 개혁교회 예배를 이야기한다. 개혁교회 예배 형식, 예전은 무엇일까?**

동방 정교회 예배나 가톨릭교회의 예배와 달리 개혁교회는 주일 예전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문서가 없다. 그렇다고 개혁교회 예전의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회중이 중심이 되어 적절하다 여기는 제안을 수용하여 형성된 개혁교회의 예전은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한 형식을 만들어 냈다. 다양한 개혁교회의 예전 중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독특한 개혁교회의 예전의 특징을 아홉 가지로 꼽아봤다.

#### 개혁교회 주일예배의 아홉 가지 특징

**하나,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찬양한다.**

“개혁교회 예배”라는 말을 들을 때, 상당수 사람들은 설교만을 떠올린다. 설교가 개혁교회 전통의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회중 찬송의 중요성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둘,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은 성도들이 직접 예배의식을 행함으로 참여한다.**

회중 찬송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모인 회중이 예전의 실행에 참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전은 성직자들이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던 16세기 초 서양에서는 상당히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단지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을 실행하는 데 ‘참여(act)하러 가는 것’이다.

**셋,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 예배를 주도하는 주체는 신자들의 공식 기관인 당회다.**

개혁교회의 전통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조직화된 지역교회 회중이라는 공식적인 모임이다. 여기서 공식적인 모임이란, 교회구성원들이 선출한 장로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권위 및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당회는 예배를 책임지며, 장로들은 회중의 권고에 따라 목회자를 청빙하고 그에게 예배인도와 설교, 성례 집행, 축도 등을 맡기는 것이다. 평신도의 참여가 예전의 실행에 본질적이며, 평신도가 당회의 장로들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교회의 예배는 회중에 계 속한다.

#### “개혁교회란”

16세기 유럽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운동으로부터 시작한다. 루터의 개혁 직후, 그에 고취된 또 다른 개혁운동이 취리히의 츠빙글리와 제네바의 칼빈 등에 의해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갔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교회들을 “개혁교회(Reformed)”라 칭하였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Presbyterian)”, 영국에서는 들을 혼용하였다. 유럽할 것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결국 같은 가족이며, 그 시작이 16세기 초 스위스 교회 개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방 정교회 예배라면 정교회 공식문서들을 연구하여 그들의 예전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찾아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개혁교회 예배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불가능하다. 개혁교회 전통을 지닌 어떠한 교파에서도 회중을 위한 주일 예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적이 없고 지역별로 자율성을 존중하기에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이것이 개혁교회 예배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 넷,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는 일상적 삶과 예전이 서로 어우러진다.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성(聖)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세속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나 일상의 삶을 저버리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혁교회예배의 독특한 특징들 중 하나는 우리의 예전적 예배와 일상의 삶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둘 사이에 쌍방향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매일의 삶이 예전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예전의 실행은 매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 다섯,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는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를 한다.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성경구절을 교인들의 언어로 소리 내어 봉독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설교를 한다. 성경봉독과 설교는 별개의 항목이 아니라 하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이 둘은 각기 서로를 지향한다.

### 여섯,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로 이해된다.

성도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 비판, 간구 등을 고백했고, 목회자의 설교에 귀기울였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의 예배」(Our Worship)에서 “집회에서 회중은 단지 그들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추구한다.”고 기록했다. 이는 하나님이 단순히 현존하신다(present)는 의미를 넘어 활동하시며(active) 회중과 소통하신다(interact)는 의미다. 우리의 안과 곁에서 행하셔서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 일곱,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는 기도(epiklesis)는 예배의식의 필수요소이다.

하나님이 예전의 행위자라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행하심이 결코 우리의 예전적 행위들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 역시 개혁교회 전통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따르는 것이며, 이러한 확신을 잘 반영한 것이 에피클레시스(epiklesis), 즉 성령임재 기도이다.

### 여덟,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 죄의 고백과 중보기도는 예배의 필수요소이다.

전통적으로 모든 개혁교회 예배에는 죄의 고백 후 목회자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중보기도도 있는데, 이것은 교인들뿐 아니라 온 교계와 인류,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 아홉,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는 성찬식을 매주 거행하지 않는다.

칼빈은 평신도들이 일 년에 한 번만 성만찬을 하는 당시 가톨릭 관습에 강하게 반대하며 매주 성만찬을 거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츠빙글리가 성만찬을 일 년에 네 번 행하고 다른 모든 주일에는 설교 의식을 행하도록 정한 이후 많은 개혁교회들이 동일한 관행을 따르게 되었다.



###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새천년의 개혁교회 예배, 오늘날, 그리고 한국에서 여전히 적절한가?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의 역사적 예전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개혁교회 전통에서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모임으로, 예전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예전을 실행하는 참여자다. 개혁교회 전통 초기부터 시편과 찬송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이 개혁교회 예배의 특징이었다. 예배하러 모일 때 예전을 실행하기 위해 잠시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들을 멈추지만, 우리 삶의 걱정이나 근심, 기쁨과 슬픔, 비판과 갈망들을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반대로 예배 후 흠어지면 우리는 그동안의 예전적 활동을 멈추고 일상생활로 돌아온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에서 행해진 것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예배를 위한 모임과 흠어짐은 매우 중요하다. 예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린다. 그러기에 성령임재 기도인 에피클레시스(epiklesis)는 개혁교회 예배의 필수요소이다.

미국에서는 개혁교회 예배의 특징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한국은 어떠한가. 개혁교회의 방식이나 예전이 여전히 적절한가? 아니면 과거의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 예전의 특징들을 간직한 개혁교회 예배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매우 귀중한 유산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성만찬의 빈도에 있어서는 츠빙글리보다 칼빈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주장대로 예전을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내가 다니는 미국 미시건 주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 Michigan)의 교회는 매주일 성만찬을 거행한다. 재정 및 장소 등 고려할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성만찬의 중요성을 공동체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한국에서는 어떠한가?

## II. The Bridge of Shalom

### 어제와 오늘,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화해

#### 본연의 자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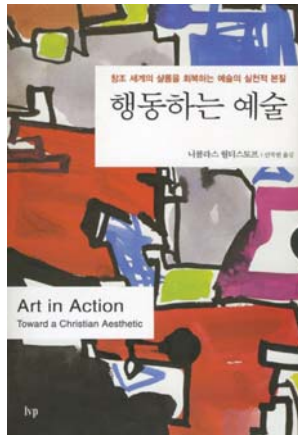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유대학을 세우고 그 기조강연에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이것은 내 것이다'고 말하지 않은 곳은 한 치도 없다."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철학도, 예술도 모두 그 본연의 자리에서 놓아야 한다. 자신이 속한 세계에 책임감을 갖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명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분투하면서 그 전통들 가운데 남아 있는 소중한 요소들을 전유(appropriate)하는 것이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 때까지』 머리말 중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shalom'을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셨다. 정의는 흑독할 수 있다. 하지만 shalom은 정의의 일부이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면서도 기쁨과 누리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정의는 각자의 권리를 평화로이 향유(enjoyment)하는 것이며, shalom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정의는 인간들에 대한 공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자연,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포함하며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 도덕적·윤리적 공동체를 넘어 책임질 줄 아는 공동체(responsible community), 다양한 존재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법이 순종되는 것을 지향한다. 그렇기에 끊임 없이 '존중(respect)'을 강조한다. 이 shalom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과 활동을 손쉽게 가능할 수 있다.

#### Editor's Comment



#### 『행동하는 예술』, IVP

창조 세계의 shalom을 회복하는 예술의 실천적 본질을 기술하였다. 기독교 문화는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일상 속에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현대 예술은 고급 예술제도 안에서 예술을 감상의 위치에 올려 놓고 일상에서 분리시켜 범접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예술의 사명은 변혁과 shalom의 실천이며,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로 창조 세계의 회복과 완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 세월호의 슬픔을 이해하다

31년 전 등반사고로 아들을 잃었다. 고통을 빨리 떨쳐버려야 한다고 들었지만 불가능했다. 그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남들이 보기엔 슬픔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화가 나면 화내고 때리고 두려우면 도망치면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사랑하는 만큼 슬픔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가슴에 큰 구멍이 뿔뿔해지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굉장하고 통스럽다. 책도, 위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점에 가보니, 슬픔을 극복하는 7단계 전략이니, 9단계 전략이니 하는 책이 많았다. 그런데 그런 책들은 온통 나에 대해서만 얘기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죽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죽은 내 아들인데 말이다.

자녀가 몇 명이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웠다. 사고 당한 아이를 빼고 4명이라고 답해야 할지, 5명이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자식이 4명이나 더 있지 않느냐는 위로의 말은 더 큰 고통이었다. 자식은 아무 때나 구입할 수 있는 구슬이 아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지 말고 그분들이 앓은 슬픔에 함께 앉아 슬퍼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다.



#### Editor's Comment



####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좋은씨앗

이 책은 아들을 잃은 월터스토프가 자신의 슬픔을 단순하면서도 정직하게 풀어낸 글이다. 음과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서, 죽음에 대한 정직한 태도로 고통과 불의를 깊이 묵상하였다.

#### 노란 리본, 공공의 신학

평화로운 사회는 구성원이 각자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정의'가 실현되고, 서로에 대한 적의가 없을 때 구현된다. 정의를 추구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며, 정의와 평등 없이 자유만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사자와 독수리(권력자)에게 아무나 잡아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과 같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국 바벨론을 적대시하지 말고, 심지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명하였다. 교회는 정부나 집권당의 권력에 기대어 그들을 대변하거나 무작정 정부를 비판하는 태도를 삼가며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오늘날 이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shalom은 인간의 모든 관계, 곳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인간의 존재 자체이다. 그리고 shalom이라는 평화는 정의 없이는 안전하지 않다. 그저 올바른 관계에 머무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완전한 shalom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다. ... shalom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을 즐기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을 즐기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을 즐기는 것이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 때까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 III. [insert] Action

#### 신앙과 학문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의식적인 노력

나는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이 논의를 현재 서구문화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고 의식적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 노력하였다. 다양한 주제-미학, 존재론, 인식론, 교육철학, 신학, 기독교 철학 등-를 다뤘으며, 특히 사회, 정치, 문화 속의 행동과 실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위기는 진리나 지식, 합리성과 객관성 그리고 가치판단에 절대적이며 선형적인 초월적인 기초가 있다는 정초주의 인식론의 몰락보다는 자유주의 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초주의와 자유주의의 무너진 터 안에 대안이 보이지 않거나 미덥지 않다는 불안이 문제다. 이 후기 자유주의 시대의 위기상황을 벗어나려면, 개혁주의적 인식론, 실천지향적 이론에 관한 논의, 대화적 진리이론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전통과 현실의 대화를 기본 골격으로, 전통의 지혜에서 현실의 위기를 치유하며 미래를 열어갈 비전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종교는 단지 추론이나 가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재를 해석하는 가장 근본적인 결정요인이다. 따라서 두 개의 다른 종교가 존재하며 철학은 다른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다원적이다.

성경이 이론을 세우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성경의 진리가 이론을 만드는 일과 무관하다는 말이 아니다. 기독교 학자의 종교적 신앙이 이론을 고안하고 고찰하는 일에서 통제적 믿음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선포하는 증인(witness)이며, 그 질서를 실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대리인(agents)이자, 그 질서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자(evidences)이다. 증인, 대리인, 증거자의 삶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부르신바 소명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방하는 신앙이 실질적인 신앙과 같지 않아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같은 신앙을 토대로 해도 다양한 이론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더 중요한 것은 신앙과 학문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진정한 학문의 정립이란 학문 외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문 내적으로 작용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신앙과 학문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 은총 아래 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전체적인 이해만이 세계관과 삶의 관점을 제공한다. 네덜란드 개혁신앙의 영향으로 신앙과 삶 전체를 성경 진리에 입각한 철저한 성경 중심적 전통에서 자랐다. 이 전통에 따라 성경의 기본진리 위에 철학, 세상과 문화와 사회를 성경의 빛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전통을 긍정과 부정, 그리고 구속적 활동인 창조, 타락, 구속의 특이한 변증법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 자신의 신앙을 삶과 학문에 투영하는 자, 세계 투영 행위자

신앙과 학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인들조차 기독교적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학과 기독교 철학의 지식이 너무 빈약한 것도 현재 상황의 주된 원인이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하니 신앙의 넓은 함축과 적용범위를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체적 연관성을 보지 못하여 오해와 왜곡이 많다. 두 번째로 상상력의 부족이다. 학문을 단지 기독교적 맥락에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독교적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뛰어난 창조성이 필요하다. 일반 학문의 경우, 성경을 각별히 주의해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신학적 또는 교파적 논쟁에 휘말려 소모적 논의에 빠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신앙의 내용이 전이론적(pre-theoretical)이라는 도어베르트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다. 신앙과 학문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다. 따라서 신앙에 근거한 행동이라 믿었던 것을 개정하거나 바꾸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진정한 신앙을 온전히 실현해내지 못하기에 완전한 이론에 도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중요한 것은 학문을 할 때의 자세이다. 기독교학문은 손에 잡히는 실재라기보다는 결단이다. 성취가 아니라 끝까지 이루려 애써야 할 사명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학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독교 학문의 대헌장 magna carta :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다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실체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즉 세계와 그 통일적 구조, 그것을 설명해 주는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한 바 있으신 살롬의 한 구성요소이다. 지식이 없는 곳에서는 삶이 시든다. 추구하는 로고스가 실천(praxis)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성을 근거로 정당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빠지기 쉬운 엘리트주의를 지양하며 섬김의 자세를 잊지 않아야 한다.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이 시대의 대표적 기독교철학자로 현재 예일대 신학대학 명예교수이자 버지니아 대학 부설 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과 옥스퍼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등에서 철학을 가르친 저명한 교육자이자 저술가로, 미학, 인식론, 정치철학, 종교철학, 형이상학, 교육철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다.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는 「정의와 평가의 임박할 때까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행동하는 예술」 등이 있으며, 옥스퍼드 대학의 와일드 강좌, 세인트앤드류스대학의 기포드 강좌, 예일대학의 테일러 강좌, 프린스턴신학교의 스톤 강좌 등이 유명하다.

※본 내용은 제7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의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강연과 그의 저서들을 중심으로 편집되었으며, 신국원 교수님의 감수로 구성되었습니다.